AI비서가 차량 제어… 높은 편의성·민첩한 주행 '매력적'

YG의 카톡 car talk

볼보 S90

볼보 AI 플랫폼 '아리' 탑재
뛰어난 음성인식 기능 갖춰
초반반응, 가속 등 승차감 탁월

볼보 S90 외관.

볼보 S90 실내.

볼보자동차는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트렌드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소비자들의 심리를 완벽하게 파악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브랜드다.

오랜기간 볼보자동차의 모습을 보면서 이같은 생각을 많이했다. 특히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5년마다 주기적으로 완전변경 모델을 내놓은것과 달리 차량의 질적 성장을 통한 고객의 요구 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 오랜 시간이 흘러도 식지 않은 인기를 이어갈 수 있는 비결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볼보코리아는 지난 2019년 처음 국내 판매량 '1만대 클럽'에 가입한 이후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같은 성장세를 이끌고 있는 뛰어난 승차감과 정숙성, 여기에 최신 기술까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볼보 플래그십 세단 S90 모델의 시승을 진행했다.

차량 외관은 클래식 볼보의 과거부터 이어진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을 담아내면서 독창적인 디자인 언어를 바탕으로 더해 더욱 매력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다. 볼보 특유의 명료한 프론트 그릴과 '토르의 망치'로 명명된 독특한 라이팅 시그니처, 그리고 크롬 가니시를 가로로 길게 적용해 여유로운 세단의 감성을 세련되고 고급스럽게 표현했다.

내부는 시트의 경우 전동식 럼버 서포트와 쿠션 익스텐션, 전동식 사이드 서포트 및 마사지, 통풍 기능을 갖춰 뛰어난 착좌감을 제공한다. 스웨덴 장인들이 직접 수작업으로 완성한 오레포스 천연 크리스탈 기어노브도 적용돼 고급스럽다.

차량에 탑승해 시동을 걸면 볼보의 인공지능(AI) 플랫폼 '아리'를 만날 수 있다. 애플에 시리가 있다면 볼보 차량에는 AI비서 아리가 있다.

아리는 뛰어난 음성 인식 기능을 갖추고 있다. 볼보코리아와 티맵모빌리티가 지난해 2.0 서비스를 내놓은 것이다. 이는 2021년 한국에서 티맵 내비게이션, 사용자 음성인식 AI 플래폼, 음악 플랫폼을 합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덕분에 과거 경로나 날씨 등을 검색했던 것과 달리 빠르게 대응했다. 볼보코리아 관계자는 "과거 5초정도 딜레이가 발생했지만 신규 알고리즘을 적용하면서 1초 미만으로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주행시 길이나 날씨, 뉴스 등을 묻는 질문에 곧바로 답해줬다. 운전자가 별도로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거나 내비게이션을 설정해야하는 불편함이 줄었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부분은 스마트폰과 차량을 연동한 상태에서 차량의 순정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경우 스마트폰 문자, 카톡 알림이 뜨면 화면이 전환된다는 점이다. 이 같은 문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행 성능은 여전히 매력적이다. S90 B6 파워 유닛은 최고 출력 300마력과 42.8kg.m의 토크를 내는 2.0L 가솔린 터보 엔진과 10kW(약 14마력, 4.1kg.m) 출력의 조합을 갖췄다. 제원 상 성능은 뛰어난 수준이라 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인 움직임은 매우 민첩하다. 초반 반응과 고속구간에서의 추월가속은 부족함이 없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포스코, 임단협 난항… 창사 이래 첫 파업 위기

중노위 2차 조정회의 협상 결렬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돌입

포스코가 또다시 파업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 노사간 극적인 합의로 파업 위기에서 벗어난 포스코가 올해도 임금협상을 둘러싸고 불협화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철강 불황과 수익성 악화로 철강업계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노조 파업 리스크까지 덮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임금협상에 난항을 겪으며 창사 56년 만에 첫 파업 위기에 놓였다. 포스코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를 진행했지만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중노위 역시 노사간 이견이 크다고 보고 최근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노조는 기본임금 8.3% 인상과 조합원만을 위한 혜택 등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노위를 통한 조정이 중단되면서 노조는 단체행동 돌입에 나설 방침이다. 노조는 당장 오는 25일 노조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돌입할 방침이다.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이 과반을 넘기면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한다.

노조가 파업에 나서면 포스코 창립 이후 첫 파업에 직면하게 된다. 철강 업황 부진에 더해 최근 제철소 내부의 화재 사고와 노조의 파업 가능성까지 커지면서 포스코를 둘러싼 위기감은 확산되고 있다.

현대제철은 임금협상 외에도 공장 셧다운에 따른 노사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현대제철 노조는 최근 사측의 경북 포항 2공장 폐쇄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지난 20일 본사 상경 집회에 나섰다. 사측은 전방 산업인 국내 건설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중국산 저가 공세까지 이어지자 결국 비용 절감을 위해 생산 감축에 나선다는 입장이어서 노조와 갈등은 쉽게 봉합되지 않을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수익성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감산 노력에도 철강업계 전반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불황의 터널의 끝을 알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철강사들이 그동안 생산량을 감소하며 글로벌 시장 악화에 대응했지만 전기료까지 오르면서 상황이 더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노사간 임단협 갈등까지 확산되면서 경영 정상화는 더욱 묘연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SK온, 국산 생산 수산화리튬 1.5만t 확보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LTA 체결

(왼쪽부터) 이경섭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대표, 박종진 SK온 전략구매담당 부사장이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리튬 공급 계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SK온

SK온이 국내에서 생산한 수산화리튬을 확보한다. 배터리 핵심 원소재인 수산화리튬의 수급처를 다변화함에 따라 구매 원가 등 원소재 조달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SK온은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과 수산화리튬 장기공급계약(LTA·Long Term Agreement)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SK온은 이번 계약을 통해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으로부터 국내에서 생산된 고순도 수산화리튬을 내년부터 3년간 최대 1만 5000톤 공급받는다. 향후 3년 연장도 가능하다. 수산화리튬은 니켈·코발트·망간(NCM) 양극재의 주요 소재다.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은 지난 2021년 포스코홀딩스와 호주 광산 업체인 필바라미네랄스가 각각 82%, 18% 지분을 투자해 설립한 수산화리튬 생산 합작 법인이다. 필바라미네랄스의 호주 산 리튬정광을 조달해 전남 광양 공장에서 수산화리튬을 추출한다.

SK온은 중국 등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는 수산화리튬 수급처를 확장한 만큼 향후 원소재 구매 협상력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화리튬 조달 시간을 단축시켜 물류 및 재고 비용을 절감하고, 수요 등 외부 환경에 보다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HD현대1%나눔재단, 아너상 대상에 '푸르메재단' 선정

"20년간 장애인들의 삶 지원"

HD현대1%나눔재단이 제2회 HD현대아너상 대상에 '푸르메재단'을 선정했다.

HD현대1%나눔재단은 제2회 HD현대아너상 대상 수상자로 장애인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는 푸르메재단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HD현대아너상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시민 영웅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HD현대1%나눔재단이 지난해 제정한 상이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1억 5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푸르메재단은 2005년 설립 이래 15개 산하기관과 함께 장애인을 위한 재활 의료사업, 장애 가족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2016년에는 국내 최초 어린이 전문 재활병원인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을 설립해 국내 어린이 의료 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했다. 2020년에는 발달장애 청년 일터인 '푸르메소셜팜'을 설립해 발달장애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HD현대1%나눔재단은 "지난 20년간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평범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푸르메재단은 상금 전액을 장애인 사업 개척에 필요한 조사연구와 재단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 최우수상 단체부문에는 미혼모 지원·상담 단체인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개인 부문 및 1%나눔상 수상자로는 30년간 소외계층을 위해 헌 구두, 신발 등의 수선과 이발 봉사 등을 해온 김병록씨가 이름을 올렸다.

/양성운 기자

이스타항공, 누적 탑승객 600만명 돌파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3월 항공기 3대로 국내선 운항을 재개한 이후 빠르게 정상화에 다가서고 있다.

이스타항공의 누적 탑승객이 지난 22일 기준 600만 명을 돌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국내 저비용 항공사 중 최단기간인 20개월 만에 누적 탑승객이 60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9월 500만 명 돌파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이는 순조로운 항공기 도입과 취항 노선 확대 등에 따른 것으로, 이스타항공은 운항 재개 이후 약 1년 8개월 만에 12대의 기재를 도입해, 현재 15대의 항공기로 국내선 3개 노선, 국제선 20개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12월에는 추가로 국제선 4개 노선에 취항할 예정이다.

또 이스타항공은 보잉의 최신 기종, B737-8의 12대 추가 도입 계약을 완료해, 2026년까지 항공기를 27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